

□ 도서관을 진단한다

우아한 건축물 그러나 책

단대별 도서관 신설 등 공간부족 해결해야

현재 각 대학에서 도서관을 종합 정보 센터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도서관 평가가 대학 평가 기준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비중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 도서관 실정은 종합정보센터란 명칭을 무색케 한다.

우선 장서가 부족하다. 96년도 총 장서수는 1백4만여권으로 미국 하버드대 1천3백만권, 일본 동경대 7백20만권의 등 외국 명문대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도서의 질을 나타내는 학생 1인당 도서관일비는 2만4천원에 그쳐 1백59만여원인 포항공대에 비교해 그 격차가 여실히 나타난다. 그러나 장서수 자체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장서의 '질'문제이다.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은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 차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레포트작성성 유용한 자료, 서적이 부족해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한 장서가 총 504장 392명중 251명인 70.3%에 달해 현재 소장장서 수준을 의심케 한다.

① 도서 구입

여기에는 학교의 부족한 지원, 의 도서신청의 비전문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전례는 사서교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만과 같이, 책과 교재에 필요한 책을 과에서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배분양보다 넘치게 신청하는 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과는 그 편차가 심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고자 도서관에서는 부분은 사서가 임의로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는 학생과 교수가 필요한 서적을 신청하는 방법 및 사서가 신청서나 학술서적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중심으로 자체 신청하고 있다. 실제 교수는 자신의 필요한 책을 대신 신청하고 있어서 교양서적 뿐 아니라 전공서적 또한 사서가 구입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믿을 만한 자료를 통해 선정한다고 해도 그 과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교재와 전공 서적을 제대로 구입하기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학과 교수들이 학부생에게 필요한 국내 전공서적이나 외국 서적 목록을 작성해 주는 것인데 이 방법은 교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② 도서 정리

부족한 장서라도 찾기 쉽게 제대로 정리해 두면 필요한 학생들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학생들의 불만을 터뜨리는 대목이다. 검색식 배치된 책들 서가에서는 책을 수 없고, 서가의 책배열이나 정리상태가 너무 엉망이라는 지적이 응답자의 97.9%를 차지해 현 도서관 정리 상태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의식에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열람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 규칙인데다 다수 학생들은 책을 다시 서가에 다시 놓는다. 물론 제대로 꽂히는 경우는 적을. 일부 학생들은 다음에 와서 볼 요량으로 타학생이 찾기 못하도록 다른 칸에 숨겨 두기도 한다. 공동 자료를 독점하려는 잘못된 의식도 문제겠지만 그 학생이 다시 그 책을 찾아 내지 않을 시 그 책은 그대로 '죽은 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실된 서책을 다시 책을 방도가 없다. 이에 대해 참고임람실 김복자과장은 "아라바이트식이 수시로 서가를 둘러보며 검사하고 있지만 잘못 꽂힌 책을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이 책을 열람한 후엔 그 자리에 그대로 둘 것을 당부했다.

③ 환 경

서울캠퍼스의 학생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개개열람실에서 떨면서 책을 찾던 기억을 한바탕 지내고 있을 것이다.

열람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세근군에 따르면 “천장이 워낙 높고 각 층이 개방된 형태라서 5월말까지 찬 기운이 가시지 않는다”고 하니 한겨울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외 환경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사서와 행정직원의 자리가 칸막이로 폐쇄되어져 있어서 학생들과 단절되어 있다. 검색엔 열람각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입

무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유리로 대체시키는 등 좀더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어려운 여건을 지적했다.

④ 사 서

도서관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사서이다. 책을 구입, 분류, 정리하는 정보 전문가의 역할까지 사서업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사서 명수로는 부여된 업무를 만족스럽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배정된 도서관 직원에는 1급 정사서 3명, 2급 정사서 9명, 준사서 1명과 그 외 직원 30명이 있고, 25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또래라는 행정인력을 매우고 있는 실정이다.

개가 열람실의 경우 사서가 1명 배치돼 있어서 학생들에게 정보보안이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한단. 물론 그 외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하자만 행정인무를 일임하고 있을 뿐 이용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정보를 안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김성진 열람과장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재정 여건상 전문인력을 대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용자에게 고차원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 지워준다고 언급했다.

학위는문설도 열악한 근무실정은 마찬가지이다. 전자열람실이 생겼는데도 이에 대한 보충인력이 배정되지 않아 사서 1인이 학위논문 안내와 전자열람실 사용 안내를 담당해야 한다. 학위 논문 김민한주임은 “전자열람실의 경우 학생들이 책도하기 때문에 잠깐 외출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시간제 노동자들이 교대로 업무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행정적 업무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⑤ 공간 활용

이밖에 현재 도서관에서 가장 큰 취약점은 공간부족이다. 다행히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일반 열람실 부족은 차례로 해결기를 보이고 있다. 우선 4층에 자리잡은 중앙박물관이 이전될 예정이어서 학생회측은 앞으로 그곳을 열람실로 활용할 것을 논의 중이다. 또한 각 단대에 생활도서관 등을 마련해 열람실을 분산시키는 계획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문리대에는 생활 도서관이 생겨 많은 문리대 학생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장서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장서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공간 확충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학위논문물의 경우 공간이 확충되기는 커녕 전자열람실이 들어서면서 소장 공간이 반으로 줄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도서관 내 상주해 있는 열람실의 공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을 타진물로 이전시키면 공간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의 기미를 보일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6.1%의 학생들이
이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열람실로 대체하야 한다는 제
의견을 도모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으로는 각 단대
전문도서관을 신설해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분야별
로 적절히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각 단대의 공간 활용에
여유가 있고, 각 전문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이
동이 가능한 것을 전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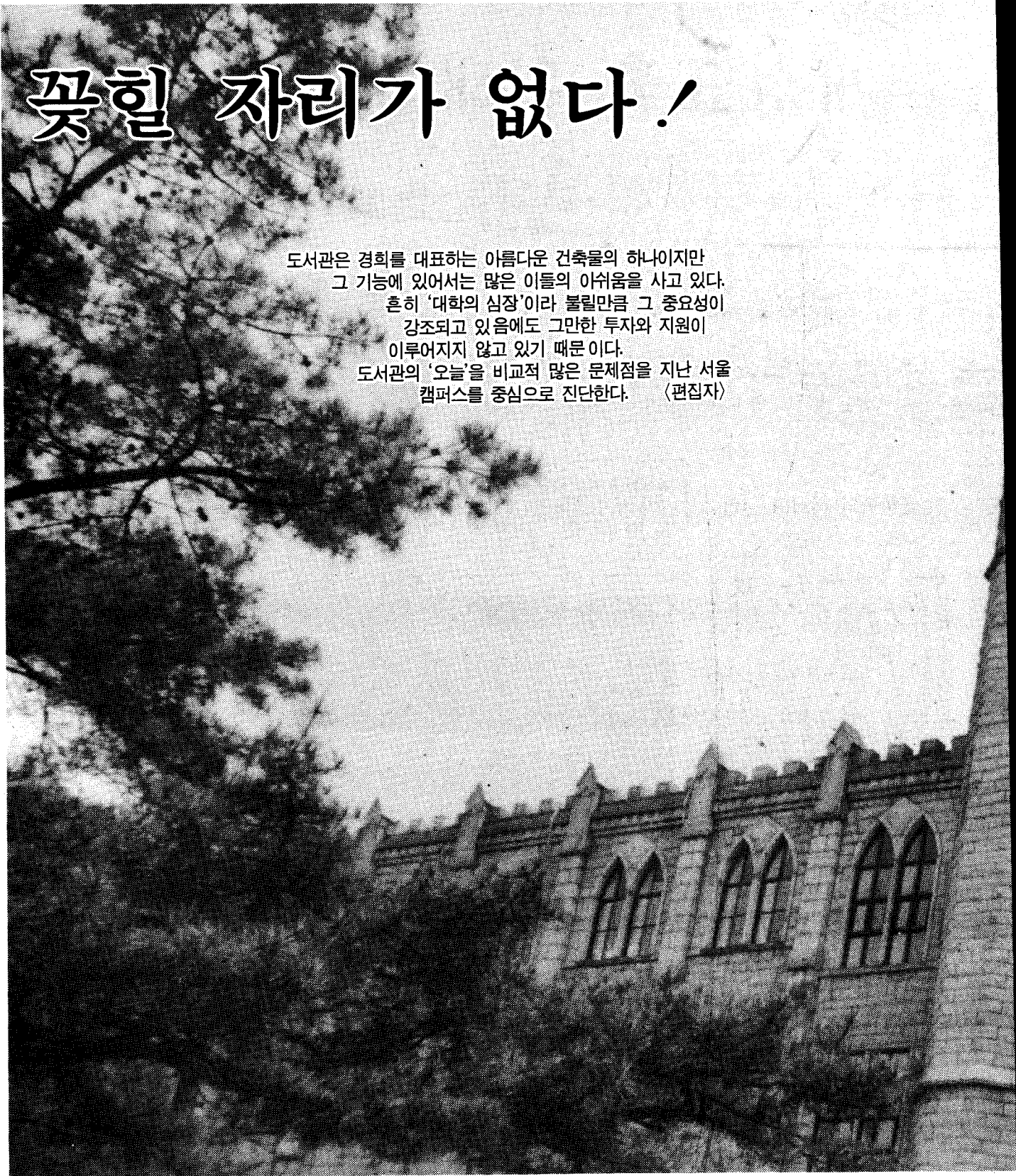
도서관의 주체는 학생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이용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46.3% 학생이 원형열람실 2층에 CD-ROM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중 16.1%의 학생만이 이를 이용한 경험에 있다. 학생들의 비정규적인 도서관 이용실태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미흡한 도서관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거북이 걸음마를 더는 도서관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충족지 못한 도서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제한된 시설이유에 무능력한 것이다.

이제는 답이 먼지만, 달같이 먼져나의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이 도서관 사실을 적극적으로할 때 사실물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보완돼야 할 사항이 다양하게 건의되어 도서관의 질향상을 모색하는 기본 토대를 이룰 것이다. **〈감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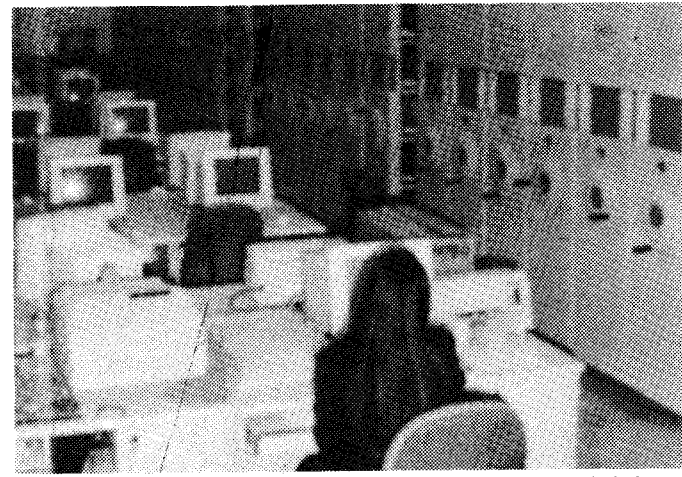
꽃힐 자리가 없다!

도시관은 경치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이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흔히 '대화의 심장'이라 불릴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그만큼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관의 '오늘'을 비교적 많은 문제점을 지닌 서울 캠퍼스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권진자)



▲개가열람실 개가식은 이용자가 자유로이 책을 열람할 수 있어 편하지만 도서관 분실된 소지가 있어 이용자들이 의식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올 2월말 습입공사가 마무리되어 조명이 많이 밝아진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 학위논문실 · 전자열람실

하네 석·박사의 논문은 소장하고 있다. 학위논문실은 현재 전자열람실이 갑작스럽게 들어서면서 공간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자료정리가 계속 진행중이지만 공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료를 CD-ROM에 저장해서 소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HYUNDAI OIL REFINERY CO., LTD.

OILBANK

“ In The Near Future ”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미카 사마에 부가미사마를 데리고